

#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이사장 김홍식 장로  
(내과의사, 수필가)

## 예수님의 눈으로

인체에는 국가의 국방체계보다 더 정교한 일련의 방어선이 있다, 첫째로 물리적 장벽이다. 피부, 눈의 각막, 공기가 들어가서 닿은 호흡관의 점막, 음식이 외부로부터 섭취되어 닿는 소화관의 막, 바깥으로 빠져 나가야 하는 노폐물을 담고 있는 배뇨관의 점막은 우리 몸의 물리적 장벽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벽에서는 땀, 눈물, 점액 등의 분비물이 나와 벽을 세균으로부터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화상이나 물리적 손상으로 장벽이 파손되면 세균이 침입을 하게 된다. 평균 성인은 하루 2만 리터의 공기를 흡입하여 산소를 흡수하는데 이 만큼의 공기는 동시에 유해한 입자와 가스를 포함하고 있다. 먼지와 그을음,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입자가 기도 및 폐포 표면에 닿으면 세포에서 분비하는 점액에 붙게 되고 기도 내부를 싸고 있는 세포에 존재하는 미세한 머리카락 같은 섬모는 점액을 위로 밀어내어 점액층에 갇힌 병원균과 입자는 기침으로 뱉어 내게 되거나 구강으로 이동하여 삼켜지게 한다.

우리 몸에서 물질적 장벽이 뚫릴 때 군대와 같은 백혈구가 등장하게 된다. 이를 면역체계라 하는데, 군대에도 여러 종류의 군인들이 있듯이 여러 종류의 면역체계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선천 면역에는 이전에 미생물이나 다른 침입자를 접해보지 않았어도 효과적으로 침입자를 삼켜버리는 대식세포, 호중구 백혈구 등이 있고, 암세포나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인식하여 세포를 아예 없애버리는 자연 살해세포도 있다.

후천 면역(적응성 면역 또는 특이 면역)은 출생 시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학습된 결과인데, 사람의 면역 체계가 외부 침입자를 만나고

비자기 물질(항원)을 인식할 때 시작된다. 그런 다음, 후천 면역 성분이 항원을 가장 잘 공격하는 방법을 배우고 항원에 대한 기억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예전에 접촉한 특정 항원에 대해 맞춤형 공격을 한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는 혈액과 체액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인데,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이다. 의학계에서는 침팬지에서 발견되는 SIV에서 HIV가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출현 시기를 1930년대 경으로 보고 있다. 즉 중앙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SIV를 보유하고 있는 침팬지와 접촉함으로써 인해 인간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변종 바이러스 HIV가 생겨난 것으로 추측한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요즘은 약이 많이 개발되어 관리를 잘하면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에이즈는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에이즈는 대단치 않은 질병으로 오해를 일으키며 주의를 소홀히 하여 아프리카에서는 요즘 또 다시 발병률이 오르고 있다. 특히 짐바브웨와 보츠와나는 약 25%에 달하는 충격적인 HIV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에이즈 환자, 또 다른 면역 결핍증 환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어울려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위로받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로, 친구로 대해 주셨다, 위대하고 온전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면역 결핍증 환자를 바라본다면 피해야 될 존재가 아닌, 치료받고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게 될 것이다.

#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남아공화국



아~~~ 월요일이 찾아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출근하셨나요?

킹받는 현대사회,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어줄 소식을 아미재가 들고 왔습니다!!

혹시 남아공 수프키친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수프키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킨 수프, 옥수수밥, 카레밥 등  
아동들의 성장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죠.

따뜻한 밥을 먹고 아이들이 힘을 내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아미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스함과 친절함은 내 초능력!!

인류애가 뽐뽐하는 당신!

"같이 남아공에 밥 한번 푸러 갈까?"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

**SOUTH AFRICA**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

**남아공화국 수프키친 사업**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

아프리카미래재단은  
배고픈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남아공 수프키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AFF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

치킨 수프, 옥수수밥, 카레밥 등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고려하여  
곡물과 채소로 구성된  
**다양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AFF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

총 8곳의 아동센터에서  
**600명의 아동**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식사는 아이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AFF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

AFF



#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마다가스카르



모두 안녕하세요!!

다들 알찬 하루 시작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아미재가 또 찾아왔습니다!!

혹시 마다가스카르 통합진료의 교육과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마다가스카르 통합의료전문의 양성사업은 지역사회에

보건의료서비스를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통합진료의 양성을 통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강의, 임상 실습 등의 방식을 통해 진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죠.

아미재만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트레이닝이 어떻게

아프리카 공공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다면.... 명예 아미재 스태프 합격

**1**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④

**마다가스카르 통합의료전문의 양성 사업**

AFF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④

**2**

마다가스카르 통합의료전문의 양성사업은 지역사회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AFF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④

**3**

1. 강사진 역량 강화 교육과 위원회 운영을 통해 강사진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합니다.
2. 통합진료의 양성을 통한 교육과정을 개발, 평가합니다.
3. 강의, 임상 실습 등의 방식을 통해 진료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AFF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④

**4**

이를 통해 다빈도 질환 치료에 특화된 의료진을 양성하여 지역 사회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합니다.

AFF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④

**5**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④

AFF





## 우간다 선교 소식

이상철 · 고유덕 선교사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간다 이상철·고유덕 선교사가 감사의 마음으로 미주 아프리카미래재단의 나삼진 목사님과 이사님 그리고 모든 동역자님께 선교 소식을 드립니다. 2023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 주시고 기도와 재정 후원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에 사역별 간단한 소식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 1. 교회 사역 소식

-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부족이자 지역인 지난 1월 15일 나콕사랑선교교회(포코라 부족)를 개척하였습니다.
- 2) 3교회 모로토디스트릭트(마데니코 부족), 나비레툽 디스트릭트(피안 부족), 아무다트 디스트릭트(포코트 부족)가 합류하였고, 코티도 로바나사랑선교교회가 2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 3) 아메로사랑선교교회에 새로운 이름 아초와사랑선교교회로 개명 하였고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 4) 지에부족의 깡 시골이던 나과나모루사랑선교교회는 행정 구역이 나누어지면서 나과나모루면 사랑선교리(아미나=사랑) 바뀌었으며, 학교는 학생 수가 188명으로 급성장하였고, 교사 숙소 및 부엌의 공사는 페인팅을 제외하고 마쳤습니다.
- 5) 신학교 학생이 38명, 성경학교는 나코나모루, 나콕, 로바나, 하다쉬고등학교 등 네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 6)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27개 교회로 8개 부족, 10개 디스트릭트(도)로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 7) AMCEA(동아프리카 아미나선교교회)를 정부에 공식적인 교단 등록과 혼인증명서 발급할 수 있는 교회로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교육 사역 소식

- 1) 유치원 6개, 초등학교 2개교 중, 2월 사랑선교유·초등학교에 메인교실 건물 (현 학생 수 300여 명)과 지에부족의 나과나 모루

사랑선교유치원(학생 수 190명) 교실 건물 봉헌예배를 드렸습니다. 2) 소로티열린유·초등학교는 2022년 졸업 국가고사(PLE)를 소로티 시에서 1위를 하여 “베스트 스쿨” 인증서를 받았으며, 외국 학생에게 학생비자를 줄 수 있는 허가, 국가고사를 치르는 장소로 허가 받았고, 남부 수단 학생 8명을 비롯하여 우간다 타지방 원거리에서 온 학생이 40명을 넘어 전교생 8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3) 아미나동아프리카대학교(AEAU)는 2월에 메인채플을, 8월에는 행정동, 강의동, 학생기숙사 2동(남·여) 완공하여 봉헌예배를 드렸고, 홈페이지 제작을 마치고 개교 허가 취득을 진행 중입니다.

4) 아미나선교열린중·고등학교는 부지 일부와 건축비 일부가 확보 되어 건축이 시작되지만 개교에는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5) 예산 부족으로 건축이 중단되었던 아무리아사랑선교유치원은 다시 건축이 진행되어 감사합니다.

6) 소로티열린초등학교에 “Holy mountine World Mission Center”(성산월드선교센터)가 완성되었고 메인 채플을 건축 중이며, 음악을 전공하신 김원희(김희숙) 선교사님께서 동역을 하게 되었고, 태권도 유단자 체육교사 보스코의 태권도 지도로 지역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랑선교유·초등학교는 학생 수의 증가와 학년의 승급으로 교실 부족이 심각합니다.

\*아미나동아프리카대학교 및 부설 교사양성학교는 개교 허가 진행과 이사회를 구성 중입니다.

\*일반 기독교학교(유·초등)와 신학교에 이어 중고등학교와 교사 양성학교 그리고 대학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벨트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말씀 교육과 차세대 지도자 양성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 3. 지에부족 사역(미전도 종족)

지에부족이 거주하는 코티도 디스트릭트는 코로나의 예배 중단과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약탈과 살인)가 겹쳐 일부 교회는



목회자들이 이탈하는 등 교회가 매우 약해지고 심지어 일부 교회는 예배 중단을 초래하고 있으나 심각한 안전 문제로 저의 목회와 선교 활동이 제약을 받아 위기를 맞고 있어서 많은 중보기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일부 교회들은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새로운 개척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으며, 나과나모 루아미나선교유치원 및 기독교고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성경학교도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에부족의 코티도 지역을 비롯하여 카라무 자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4. 라디오 방송국과 사회복음 사역

CTS 라디오 협력으로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라디오 방송국 "Radio JOY Uganda & E.A"는 방송 프레임 제작이 완료되었고, 방송국은 대학의 행정동 내에 설치하였으며 지금 방송 시설과 장비를 마련 중입니다. (2024년 개국 예정).

금년 들어 우물 사역은 물이 귀한 아초와 아미나선교교회(A.A.M.C)와 아무리아A.M.C에 드릴링 하였으나 아초아는 성공을 했고, 아무리아는 실패를 하여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티도의 캐체리와 로키딩은 부지 확보와 워터서브웨이(수맥 찾기) 만 마친 상태에서 사회 혼란으로 중지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역은 장학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신학생, 기독교고와 남부수단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과 초등학교 특별 영양식을 제공하고, 나과나

모부사랑선교 기독교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영어성경 및 부족언어) 보급과 의료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 이찬희(김다솔) 목사가 KPM 선교훈련을 마친 후 지난 9월 7일 우간다에 입성했습니다.

#### 5. 기도제목

- 1)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선교지 우리 현지인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 2)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와 학교가 말씀으로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 3) 아미나동아프리카대학교(AEAU)의 이사회 구성과 개교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4) 사랑선교유초등학교와 소로티열린유·초등학교 및 아미나열린중·고등학교에 꼭 필요한 교실의 건축비가 마련되게 하옵소서.
  - 5) 우간다교육자선교회를 조직하여 학원선교를 통한 우간다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 6) 동역자 김원희(김희숙) 선교사님과 큰아들 이찬희(김다솔) 선교사의 건강과 태중에 있는 우리 쌍둥이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하나님의 진리와 놀라우신 은혜가 미주아프리카미래재단과 동역자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 남아공 선교 소식

김경환 • 송선아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4년 새 해 섬기시는 가정, 교회, 일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기도에 힘입어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 1. 섬기는 일들

- BTCP 2년 과정
- Western Cape
- Over, 2011
- City of Cape Town, 2016
- Cape Winelands, 2019
- Garden Route, 2020
- Narthern Cape
- Namaqualand, 2015
- WIU
- Westminster International University(B. Th/M, Div./D. Min, 2020)
- 헬더스트룸 교도소
- 아버지 학교 (father school, 2012)
- 어머니 학교 (Mother school, 2014) 등
- 기타 사역

### 2. 11-12월의 감사와 기도 제목

Bible School Graduation: 11월 9일 헬더스트룸. 두 명의 형제 (Jaques, Johan)가 졸업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Bible School Graduation: 11월 25일 허마누스. 21명의 학생들이 졸업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을 뻔했던 니콜린 자매가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ible School Graduation: 12월 2일, 나마콰란드. 8명의 학생들이

졸업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2월 5-8일에는 웨스턴 케이프 우스터 지역에서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 선교사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쉼과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 14일에 장인어른(송기홍 장로)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기도와 위로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최선의 경주를 다 하겠습니다.

### 3. 1-2월에 섬길 일들

1월 13일 토요일 허마누스에서 현지 동역자들과 신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도에 섬겼던 사역과 2024년 섬길 사역을 나누고 보고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Father School (1월 20일, 2월 17일, Mountain View Baptist Church): 아내와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1월, 2월 토요일 두 차례에 걸쳐 아버지 학교를 섬깁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Father School Vision School(2월 3일, 아프리카 리더십 선교센터): 형제들이 모여서 2024년 아버지학교를 계획합니다.

Prision Rather School. 1-3, 스프링북 교도소): 스프링북 교도소 100여 명의 재소자들이 있는 작은 교도소입니다.

신학교 개강: 1월 셋째 주, 2월 첫 주 BTCP 신학 과정을 개강합니다. 2024년 한 해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 AFRICA FUTURE FOUNDATION NEWS



## 니제르 학교 지원키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이사장 김홍식 장로)는 12월 10일 ZOOM으로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니제르 정혜림(Aileen Chung) 선교사 학교 사역 지원 등의 현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가 그동안의 업무와 2023년도 아프리카 사역 지원 상황을 보고하였고, 이어 한국 AFF사무총장 김억 목사가 아프리카미래재단 현안들을 보고하였다.

김억 목사는 내년 8월 29일부터 사흘간 짐바브웨 빅토리아폴스에서 AFF선교사대회를 개최하고, 연이어 짐바브웨, 말라위 두 나라에서 현지 지도자 훈련과 성경학교를 동부본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게 됨을 보고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정혜림 선교사와의 만남과 선교 보고 참석 결과 및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가 나제르 장학 사업을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홀러턴 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와의 만남 결과를 보고하고, 당면한 남자학교 개교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김홍식 이사장이 5만 달러를 현금하고, 미국법인 현금으로 3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학교는 2024년에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 우간다 파자교회, 학교 사역 시작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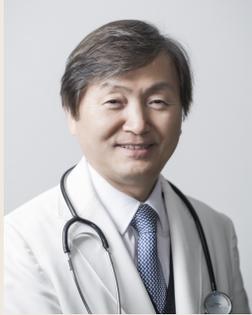
아틀란타지부(지부장 이경호)의 지원으로 건축된 우간다 파자교회는 주의 은혜로 건축후 더 신나게 부흥하고 있다. 이 지역은 반군

지역으로 내전이 있 을때에 많은 생명들이 죽기도 하였는데,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이사도 가고 그런 마치 버려진 땅이었던 곳이 파자교회였다. 교회가 건축 된 이래 이제는 찬양소리가 퍼지고 있다. 지난 1월 2일 교회리더들이 회의를 하여 마을 아이들이 주변에 학교도 없고, 학교에 가더라도 너무 멀리가야하기에 유치원 1.2반과 초등학교 1.2.3학년까지만 우선 시작하기로 합의를 보고 학부모위원회가 조직 되었다. 학교 이름을 King's Way Nursery and Primary school 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 2024년 1차 정기이사회 개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1월 11일 저녁 김홍식 이사장 댁에서 2024년 1차 이사회를 열어 지난 1년 동안의 재정과 사업 보고를 받고, 김진영 장로, 켄 박 집사, 박은희 집사 등 3인을 신임이사로 선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억 사무총장이 8월에 있을 AFF 아프리카 선교사대회에 대한 준비상황을 설명하였고, 서부지역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탄자니아 UAUT대학 총장으로 내정된 김성수 박사가 동참하였으며, 이전에 이사 참여를 논의하였던 지성은 목사와 접촉하여 이사 참여 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김성수 총장의 경우도 아틀란타 지부와 협력하며 추후 협력선교사 등으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박상은 대표(1958~2023)

아프리카미래재단 박상은 대표가  
베트남 의료선교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그의 삶과 사역을 기리는  
추모특집을 마련한다.

선한 의사의 박상은의 삶과 사역을 노래함

국경 없는 사랑



추  
/  
모  
/  
시

나 삼 진

온 나라를 휘감던 가난과 질곡의 세월  
전후(戰後) 베이비부머들 데리고 이 땅에 와  
사랑 가득한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목회자의 기도 소리 들으며 자랐니라  
영파(靈波)를 담은 일곱 형제가 믿음과 사랑의 길따라  
빛나는 은혜의 가문 일구었니라

의술로의 부르심, 재물을 쌓는 의사 보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보다 나은 길을 찾으려  
부산까지 달려 성자 장기려를 만났더니  
그의 길은 바보의 길, 그의 길은 나눔의 길  
마지막 제자로 그를 배우고 닮아  
선한 의사, 나누는 의사가 되었니라

부산의 청춘들과 꿈 예수시대의 꿈 영글어  
그의 눈은 북누리로 열려,  
녹슨 철책을 걷고 잃어버린 영혼들 돌보기 열 차례,  
그 문이 닫히자 주께서 새로운 문을 여셨더니  
누가회, 기독의사회, 의료선교협회, 나라 위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까지  
그 발자국은 길이 되고, 곳곳에 아름답게 꽃 피웠니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침을 듣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였더니  
'미래'가 없는 사람들 위해 세운 아프리카 미래재단,  
에티오피아와 잠비아로, 짐바브웨와 말라위로,  
또 에스와티니와 탄자니아로  
푸른 세상을 만들며 달린 17년은 거침이 없었어라

검은 대륙의 미래를 위한 꿈, 이제 아름답리 나무로 자라  
흰옷 입은 선교사들의 그늘이 되었니라, 안식이 되었니라  
슈바이처 박사의 맑은 박물관으로 남았어도  
조선에 뿌리 내린 로제타 홀의 길을 따라  
그가 누빈 스물 두 나라에 우뚝 선 기념비들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케 하느니라

하룻길도 더 되는 비행길 백여 차례, 벗이여 지치지도 않더이까?  
그 땅 나들며 속으로, 속으로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들,  
예수 다섯은 아직 청춘인데, 임 그리는 마음 너무 뜨거워,  
아내와 아이들 작별 인사도 없이 달려갔구나  
남누리에, 북누리에, 아프리카 온 누리에, 마지막 길 베트남에  
생명을 내어 준 바보 의사의 흠뻑린 사랑은 국경이 없어라

박상은 대표는 대구동신교회를 개척하고 서울 대길교회를 목회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 박용묵 목사의 아들로 1958년 대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에게서 배우기 위해 그가 설립하고 일군 부산 복음병원(고신대 의과대학)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며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고신대 의대 내과 조교수로 가르쳤다. 이후 성남중앙병원 내과과장을 거쳐 1996년에 미국 커버넌트신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생명윤리를 연구하고, 미주리 주립대에서 교환교수와 안양샘병원 원장(2002-2014), 샘병원그룹 대표원장(2015-2018)을 지냈다.

그는 대학 때 CMF, 이후 누가회 리더로 활동하였고, 이후 한국누가회 회장(2005-2009), 한국기독교의사회장, 의료선교협회장(2015-2017),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IOC) 의료보건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의료 선교를 온몸으로 실천했다. 지금까지 안양샘병원 미션원장으로서 고려의대 외래교수, 한동대 겸임교수(2001-현), 국제보건의료학회회장(2021-현재),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이사장(2023-현재)으로 일했다.

그는 나라에 의과대학이 없는 에스와티니의 선교사의 방문을 받고 의과대학 설립에 공감하여 2007년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설립해 그 사역을 시작했고, 이후 사역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50여 차례를 다니며 각국의 의료, 보건, 교육을 통한 선교사역에 힘썼다.

그의 요청으로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 법인도 1999년 9월 21일 설립 이후 잠비아 제라보건대학 강의동 건축, 강당동 건축은 물론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이집트 난민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힘써 왔다.

박상은 대표는 그동안 국내 및 국제적인 의료봉사 사역으로 보건사회부 장관상(2005), 경기도지사상(2014),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대상(2014), 국민포장(2015), JW중외박애상(2022)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교회통찰(공저, 2020), 현대 의료 선교학(공저, 2018), 박용묵 목사의 10만명 전도의 꿈: 아버지 박용묵 목사의 믿음의 유산(2011), 의료선교학(공저, 2004), 인간배아 복제: 과학의 승리인가(2004), 생명의료윤리, (1999),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1997) 등이 있다.



##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박상은 대표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undation USA 사무총장)

한국 교회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교회 소속이었던 선교사들이 ‘은둔의 나라’ 조선에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이었지만, 선교가 뿌리 내리기는 미국 교회 선교사들의 사역이 절대적이었다. 한국 선교 역사에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숭실대학교를 설립한 윌리엄 베어드,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시작한 마포삼열 등 수많은 선교사들의 특별한 헌신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소속의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도 있다.

헨리 데이비스(Joseph Henry Davis) 선교사는 1988년 8월 16일 호주 멜본 YMCA에서 거행된 환송회를 갖고 8월 21일 멜본을 떠나 40일간의 항해를 거쳐 1889년 10월 2일 누이 메리 데이비스(Mary Davis)와 함께 부산에 입항하였다. 그는 이어 서울로 올라가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언어 훈련을 하여 일상 대화는 물론 우리말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는 이듬해 3월에 서울을 출발해 도보로 사역지로 정한 부산까지 전도여행을 하였다. 그는 3월의 추운 날씨에 긴 여행이 무리가 되었는데, 4월 2일 부산에 도착한 후 겨우 이틀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젊고 유능한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은 호주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호주 교회의 한국 선교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의 순직은 호주 장로교회에 한국 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청년연합회는 1891년 존 맥케이 선교사를, 1894년에 아담슨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를 계속하였다. 호주장로교회는 일본에 의해 선교사들이 추방될 때까지 때까지 78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여 부산경남지방에 집중적으로 선교하였다. 당시 호주장로교회의 선교비 80%를 한국에 쏟아부었다.

한국교회 초기 각국 선교부는 선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양 협정으로 선교 지역 분할 정책을 채택했다. 초기 미국 북장로교회가 부산지역을 선교했지만, 호주장로교회 선교부는 부산경남 지방을 양도받아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하였다. 복음화율이 낮은 부산 경남지역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호주 장로교회 선교의 열매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그들의 선교

지역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것도 기억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65세의 젊은 나이로 베트남 의료 선교 중에 순직한 박상은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의 죽음은 워낙 예기치 못한 죽음이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는 CMF, 한국누가회, 의료선교협회 등 한국교회 의료선교의 문을 열었던 인물이다. 그는 또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적인 사업을 주도하여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 짧았던 그의 삶을 두고 그를 아는 사람들, 아프리카 각 나라의 선교사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박상은 대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의과대학 출신의 배도선 선교사의 추천으로 장기려에게서 배우기 위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수련의과정을 하였다. 그의 장기려 박사의 마지막 제자로서 그로부터 생명 존중의 의술을 배웠다. 이후 10년 가까이 북한 사역을 하였고, 그 문이 닫히면서 나라에 의과대학이 하나 없는 에스와티니 선교사의 요청으로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설립해 그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지 선교사와의 협력이 여의치 않아 에스와티니를 떠났다. 그러나 이는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좌절이 아니라 사역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가 17년 동안 편도 20시간 이상이 걸리는 아프리카에 50회 이상 왕복여행을 하며, 그 누구보다 아프리카를 사랑하였다. 그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업과 정부 기관의 ODA사업을 연결하여 아프리카 여러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눈부신 사역을 하였고, 4년 전에는 미국 한인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연결해 미국에서도 사역이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박상은 대표가 이 땅과 아프리카미래재단을 떠났지만, 아프리카미래재단의 사역은 중단될 수가 없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부산에 도착한지 이틀만에 순직한 것이 호주장로교회의 한국 선교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던 것과 같이, 그의 때 이른 죽음은 아프리카 선교에 새로운 인물들을 일으켜 그가 완성하지 못한 뜻을 더욱 가열차게 이어갈 것으로 믿는다.

#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 기관번호 (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250)
- 714-732-1484 (미국) +82)31-342-9182 (한국)
- ✉ aff@africaff.org 🌐 www.africaffusa.org
- 🗣️ 📺 아프리카미래재단
- 📷 africafuturefoundation

##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송금하실 때
  - 은행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 121000358
- 송금하실 때 (아틀란타지부 전용)
  - 은행 : Chase Bank
  - 계좌번호 : 462352621
  - Routing 번호 : 322271627

## 선한 청지기들 2023. 10. 1- 12. 31 / 재정 보고

### 헌금자 명단

권태길 김동천 김은식 김응원 김인용 김준화 김홍식/김정미 나삼진 나지은 박광은 백형순 송은석/이원희 신영애 심재광 이경호 이승숙 이승희 이정웅 이종남 이홍철 장국현 장순애 정용희 정재훈 정진철 최의석 태승남 한창훈 허지국/허영화 허철신 황길남/황로미 Euiwon Chough, Chong In Kim, James Kim, Chong Kim, Eun S. Kim, Ester Lee, Michelle Lim, Andrew Pae, Moses Park, Simon Paek, Roger Smith, Song Young, Michael Yang, John Yahng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새벽이슬교회, 신약국(신사라), 예수소망교회, 오렌지카운티살롬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JJ물리치료(정정훈), Exalting Christ Church of Atlanta, Livingstone Home Health, ENL Service, BWI Corp. dba Beach West Inn, Journey for New Hope, First Priority Hospice Kani Han, Steve Lee, Kenneth K. Lim,

\*혹시 이름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AFF 사무총장 (714-732-1484)에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기 결산

### 수입부

10월	12,690
11월	18,715
12월	57,380
	950
수입계	89,785

### 지출부

사업비/지정 장학금 (아프리카 학생)	2,000	사무비	331.62
이집트 난민사역비	6,000	인건비	2,743.50
니제르 사업비	80,000	세금	486.00
소계	88,000	CPA	150.00
행정비/회보인쇄비	2,207.75	조의금	793.94
우편료	798.45	지출합계	7,511.26
		지출합계	95,511.26

### 수입부 아틀란타 지부

10월	11.100
11월	3,800
12월	1,000
합계	15,900

### 지출부 아틀란타 지부

교회 헌당식 행사비	1,000
DR 광고 사업비	2,360
조의금	800
송금수수료	50
합계	4,210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http://www.africaffusa.org)

